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6일 월요일 음 2월 15일 (7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9/19℃
모레	맑음	9/20℃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8℃로, 낮 최고기온은 15~17℃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10℃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6:57 해짐 18:34	달뜸 17:23 달짐 06:29
물때	만조 10:45 22:36	간조 04:28 17:10

식중독지수 관심 /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시진핑 3기' 공식 출범 中 양회 개막

국방 예산 증가 폭에 주목

중국 정협 개막식. 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양회는 이른바 '정찰 풍선' 문제와 러시아 무기 제공 의혹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매년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 자문회의인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4기 1차)는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참석했으나 나머지 2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계속된다.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중국' 노선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 예산 증가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김 성 훈
편집부장

'코로나 3년', 잃어버린 3년이 아니길…

코로나19로 인해 3년 남짓 끊겼던 지구촌 왕래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가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이 중국 시장이다.

중국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하고 있다.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때 연 300만명 전후로 제주를 찾기도 했다. 2017년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다.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 정부가 사실상 자국민들의 한국 여행을 막으면서 제주외래관광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중국 시장과 거래하던 전세버스를 비롯해 호텔 등 수많은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드 사태는 당시 제주관광에 치명타를 가했지만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다. 그래서 관광전문가들은 '포스트 사드'를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외래시장 전반에 체질화된 중국 시장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동남아 시장에 시선을 돌리기도 했지만 중국시장 대체지로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더불어 갖가지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갑질도 경험해야 했다.

어찌어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은 회복되기는 했지만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모두 알다시피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라는 펜데믹이 지구촌을 덮치며 회복세를 띠던 외래관광시장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됐다.

중국 시장은 제주에 가장 큰손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 한 시장이었다. 중국 관광객들은 손님으로 오는데 대접을 못 받아 불만이고 일반도민들은 그런 손님을 귀찮아했다. 중국 외래인바운드 관광시장의 가장 병폐였던 '저가상품'이 부른 결과다. 중국인들은 싸구려 손님으로 대접받으니 기분 좋을 리 없을 터다. 귀국 후 볼멘소리가 잇따랐고 당연히 제주 이미지도 나빠졌다.

사실 한편으론 제주관광업계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 중국 현지 대형여행사의 갑질이 정상적인 관광상품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관광객을 송객시켜주는 대가로 이른바 '인두세'가 나타나면서 제주외래시장에 중국시장은 정상가격 개념이 사라지면서 싸구려관광이라는 불명예가 이어져 왔다.

관광전문가들은 과거의 병폐를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주외래시장의 가장 병폐인 '저가상품'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 정부도 그동안 철저하게 막았던 빗장을 서서히 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중국인들의 '보복해외여행'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드 사태로 우리는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했다.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필요성 인식 자체만으도 제주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 3년', 그냥 잃어버린 3년이 아니길 기대한다. 물론 앞으로의 행보, 즉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열린마당

교통안전을 위한 단상(斷想)

박 구 생
제주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3년 남짓 끊겼던 지구촌 왕래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가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입장에서는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이 중국 시장이다.

중국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하고 있다. 제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때 연 300만명 전후로 제주를 찾기도 했다. 2017년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다. 사드 사태로 인해 중국 정부가 사실상 자국민들의 한국 여행을 막으면서 제주외래관광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중국 시장과 거래하던 전세버스를 비롯해 호텔 등 수많은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드 사태는 당시 제주관광에 치명타를 가했지만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다. 그래서 관광전문가들은 '포스트 사드'를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외래시장 전반에 체질화된 중국 시장 의존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동남아 시장에 시선을 돌리기도 했지만 중국시장 대체지로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더불어 갖가지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갑질도 경험해야 했다.

어찌어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시장이 조금은 회복되기는 했지만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모두 알다시피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라는 펜데믹이 지구촌을 덮치며 회복세를 띠던 외래관광시장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됐다.

중국 시장은 제주에 가장 큰손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 한 시장이었다. 중국 관광객들은 손님으로 오는데 대접을 못 받아 불만이고 일반도민들은 그런 손님을 귀찮아했다. 중국 외래인바운드 관광시장의 가장 병폐였던 '저가상품'이 부른 결과다. 중국인들은 싸구려 손님으로 대접받으니 기분 좋을 리 없을 터다. 귀국 후 볼멘소리가 잇따랐고 당연히 제주 이미지도 나빠졌다.

사실 한편으론 제주관광업계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 중국 현지 대형여행사의 갑질이 정상적인 관광상품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쳤다. 관광객을 송객시켜주는 대가로 이른바 '인두세'가 나타나면서 제주외래시장에 중국시장은 정상가격 개념이 사라지면서 싸구려관광이라는 불명예가 이어져 왔다.

관광전문가들은 과거의 병폐를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주외래시장의 가장 병폐인 '저가상품'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중국 정부도 그동안 철저하게 막았던 빗장을 서서히 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중국인들의 '보복해외여행'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드 사태로 우리는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했다.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하더라도 필요성 인식 자체만으도 제주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 3년', 그냥 잃어버린 3년이 아니길 기대한다. 물론 앞으로의 행보, 즉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양 일 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시작됐다.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 싸운 저항의 역사가 담긴 날이다. 이 시위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 보장을 의미하는 말로 그 당시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여성의 날'은 역사는 짧지만,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지위와 인권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 또는 향상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시행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정책의 혜택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 문화와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상호존중으로 함께 살아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통해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아스미 6년생
·한라봉 2,3년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탱자묘목 2,3년생
·하귤 4,5년생 그외 다수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귤(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아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